

탐심을 버리고 말씀 따르기

민수기 22:41~23:12

【인도자를 위한 예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곧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로 이 거룩함을 지켰고, 그 결과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에서 잡혀 온 포로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 버리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바라보는 대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현대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친지 성도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목회자들까지도 휩쓸려 떠내려가는 지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분투한 사람(성경 인물 제외)을 알고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22~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침입을 막기 위해 탁월한 점술가로 알려진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벌어진 여러 다른 사건과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체가 아닌 이방인이 주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사건이 아닌 영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민수기의 기록만 보면 발람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발람을 불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벧후 2:15; 유 1:11),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계 2:14).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민수기 25장의 기록을 통해 그가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방법을 은밀히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처럼 세속적이고 타락한 주술사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은 그중 첫 번째 예언을 기록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발락은 발람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그곳에서 발람은 무엇을 요구했나요?(22:41~23:1)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곳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일곱 개의 제단을 쌓고 일곱 마리의 수송아지와 숫양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발람은 ‘탐닉자’ 혹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640킬로미터나 떨어진 모압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당시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점술가였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와 대화하는 등의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할 뿐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지만(22:38),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찾아간 곳

은 하나님이 아닌 다산과 번성의 우상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모압 왕에게 요구한 제단과 제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통적인 제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러한 제단과 제물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나 실상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I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거나, 하나님 뜻을 알면서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 있나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출 20:7)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는 ‘헛되이’(in vain, for nothing)라는 의미인데, 여호와와 이름을 남용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남용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불렀던 까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선악 간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순간적인 욕심과 안락을 위한 탐욕에 눈이 멀어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관찰과 묵상 II

발람의 기대와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에 발람이 질책하자 발람은 뭐라고 말했나요?(12절)

발람은 발람에게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은 5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에 사용된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발람이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람 같은 악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반면, 발람에게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우상 중 하나로 치부해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 줍니다.

적용과 나눔 II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우, 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24:17). 이 메시아 예언이 민수기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예언을 발람이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때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예언을 했기에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삼상 10:12)라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상과도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